

18

냉난방(보일러와 에어컨 등) 배관공에서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41세	직종	보일러 배관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---	-------	----

1 개 요

최○○(남, 41세)은 1978년부터 일용직 냉난방(보일러와 에어컨 등) 배관공으로 여러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00년 12월 폐암으로 진단 받고 치료하던 중 2001년 3월 사망하였다.

2 직업력 및 작업환경

망 근로자 최○○는 일용직 배관공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보일러 배관작업과 에어컨 배관작업 및 용접작업을 하였다. 주로 보일러의 설치와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설치작업은 보일러를 설치한 후 배관작업이고, 보수작업은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를 철거하고 새로운 보일러를 설치한 후 배관작업이며, 마무리작업으로 청소작업을 하였고 한다.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1978년부터 2000년까지 망 근로자 최○○가 작업하였던 14개 사업장에서 석면포와 석면테이프를 사용하였고 20여개 사업장에서 불티방지포인 석면포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.

3 의학적 소견 및 개인력

망 근로자 최○○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았고, 음주는 맥주 1~2잔 정도로 월 1~2회 정도 마셨다. 2000년 10월 성남소재 인하대학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으나 다

시 전원하여 2000년 12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(3×2Cm 종괴, T1N2Mo, 좌측상엽)과 기관지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에서 편평상피세포암(poorly differentiated)으로 진단 받았다. 항암제의 2차 치료 도중 2001년 3월 11일 사망하였다.

4 고 찰

석면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폐암은 일반적인 폐암 발생연령보다 조금 이른다. 망근로자 최○○도 일반 폐암의 발생 연령보다 41세로 빠르다고 판단되며, 석면폐증과 늑막비후, 초자성비후, 판상석회화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않았지만, 이는 석면에 의한 폐암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이러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도 폐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.

5 결 론

이상의 조사결과 망 근로자 최○○의 폐암(편평상피세포암)은

- ① 보일러의 설치 및 보수작업에서 배관작업을 22년 간 하였고, 이 기간동안 용접 작업시 불티방지포로 석면포를 22년 간 사용하였고,
- ② 폐암의 가장 많은 원인인 흡연을 하지 않았고, 기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.